광주U대회 개·폐회식 알뜰하게 치른다

박명성 총감독 위촉 이어 4월께 행사 대행사 선정

최소 비용…효율화 중점 전국민 아이디어 공모도

지난해 7월 17일 러시아 카잔에서 열린 카잔유니버시아드 폐회식 공연 모습. 러시아는 수백억원을 투입, 전용 공연장을 새로 지어 개폐회식 행사를 치렀다.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이하 광주U대회) 개·폐회식 행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박명성 신시컴퍼니 대표가 개·폐회식을 진두지휘할 총감독으로 지난 6일 위촉된데 이어 올 4월께엔 개·폐회식의 내용과 방식을 제안하고 현장에서 공연 운영을 담당할 대행사가 선정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U대회를 비롯해 올림픽, 월드컵 같은 대규모 국제스포츠행사의 개·폐회식은 대회 주최국의 국력과 문화 수준을 전세계에 알리는 첨병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13일, 광주U대회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에 따르면 광주U대회 개막식은 오는 2015년 7월 3일, 그리고 폐막식은 7월 14일 광주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게 된다. 행사는 해지는 시각에 맞춰서 시작될 예정이다.

개폐회식의 방향과 내용은 조만간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지만, 조직위원장인 강운태 광주시장이 밝힌 대로 '최소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야한다'는 대원칙에 맞춰 준비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마무리된 러시아 카잔 유니버시아드의 경우, 러시아는 오로지 개·폐회식 행사만을 치르기 위해 수백억원을 들여 축구장 크기의 공연장을 새로 지었다. 지난해 7월 17일 카잔에서 열린 폐막식 행사에는 U대회 선수단과 세계 각국의 관광객 3만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3시간 여 동안 대규모 초호화 공연이 진행됐다. 러시아의 다양한 문화를 선보인 폐회식에는 특히, 푸틴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세계 초강대국으로서 위상을 과시하기도 했다.

조직위는 그러나 러시아처럼 엄청난 물량을 쏟아붓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최대한 예산을 절약하면서도 한국과 광주를 전세계에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데 골몰하고 있다. 대행사만 단독으로 선정했던 기존 대회들과는 달리 총감독과 대행사를 따로 선정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개·폐회식 아이디어 공모에 들어간 것도 개폐회식 행사를 효율적으로 치르기 위한 고심의 결과다. 조직위는 총감독과 대행사 체제로 진행될 개폐회식을 차질없이 준비하기 위해 최근 직원들을 '2014 인천아시안게임 조직위'에 보냈다. 임권택 감독에게 총감독을 맡기고 (주)HS애드컨소시엄을 대행사로 선정하는 등 광주시와 똑같은 체제로 개폐회식을 준비하는 인천아시안게임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다.

조직위 관계자는 "인천아시안게임의 대행계약액이 268억원대에 이르는 등 U대회와 비슷한 규모를 가진 대회의 개폐회식 비용은 200억원 수준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광주U대회는 광주의 실정에 맞춰 예산투입을 최소화할 계획"이라며 "박명성 총감독의 풍부한 무대경험과 최고의 뮤지컬 흥행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국 전통문화와 대중문화의 다양성을 역동적으로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경영혁신 성과 이제 시민에 돌려줄 것"

홍기남 광주도시공사 사장의 신년 구상

광주도시공사는 지난해 창립 20주년을 맞아 순이익 200억원을 달성하는 눈부신 성과를 거뒀다. 강도높은 자구노력을 펼치고 재무안정성 확보에 나선 결과다. 광주도시공사의 경영혁신을 이끌고 있는 홍기남 사장을 13일 사무실에서 만나 신년 구상을 들어봤다.

-지난해 성과를 결산한다면.

▲취임 이후 도시공사 문제점을 진단하여 선진화계획을 수립하고 2012년부터 본격 추진해왔다. 지난해는 선진화계획 2년차로서 매출액 1880억원과 당기순이익 200억원을 달성, 창사 이래 최대 재무성과를 달성했다. 또한, 지방공기업경영평가 전국 1위, 국가품질경영대회 국무총리상, 지방공기업학회 경영혁신 최우수상, 광주·전남사회공헌대축전 종합대상을 수상하는 등 대외적으로도 인정받은 한해였다.

-올해는 선진화계획 3년차다.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

▲현재 선진화계획 이행률은 95.7%다. 정착단계를 지나 본격적인 궤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도 미래 지속가능한 조직기반을 구축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무안정성 지속강화, 전략적 예산운영, 최적의 자금관리, 지속가능한 신규사업발굴, 스타사업 활성화, 조직역량 극대화 등 각종 핵심과제들을 지속 추진할 생각이다.

-새해 도시공사 운영방향은.

▲올해 경영성과 목표인 재무성과 10%증대와 대내외 평가 최우수그룹을 유지하는데 집중할 생각이다. 조직 역량을 극대화하고 지속가능한 경영기반을 구축하는데도 노력하겠다. 도시공사는 시민이 주인인 공기업이다. 따라서 지난 한해 동안의 성과를 온전히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올해 중점 사업에는 어떤 것이 있나.

▲현재 추진하고 있는 혁신도시 건설, 진곡산업단지조성, U대회선수촌건설 등 각종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다. 그리고 영구임대주택과 맞춤형 임대주택사업, 도시형생활주택건설 사업을 비롯해 공공기관 이전부지 재생사업, 평동 군훈련장 이전·개발사업 등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전세대란으로 인한 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금년에도 임대주택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임대주택 사업은 도시재생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만큼 올해는 도시재생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한해가 될 것이다.

/홍행기기자 redplane@

광주시 키즈공유센터 개소 한달만에 300여명 이용

합리적인 소비촉진 시설인 광주시 키즈(아동)공유센터가 개소 한달만에 300건이 넘는 물건 교환이 오고갈 정도로 인기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2월 초 시청 1층 민원실 부근에 어린이 용품을 교환, 대여하는 빛고을 키즈공유센터를 개소했다. 이 센터에서는 가정에서 쓰던 유모차, 장난감, 책 등 아동용품을 키즈공유센터로 가져오면 다른 용품으로 교환할 수 있는 쿠폰을 지급하고, 보관중인 물품을 무료로 대여해 주고 있다.

그동안 시민들의 이용실적을 보면, 접수(기증) 25건 171점, 교환 12건 66건, 대여 77건 100점 등 총 114건 337점에 달한다. 광주시는 또 올 상반기내에 온·오프라인에서 '빛고을 지식공유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시민들은 지식공유센터에 자신이 가진 책과 재능을 기부할 수 있으며, 시는 기증받은 책과 재능을 작은도서관 또는 소외계층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다만, 선거법상 시민이 직접 시에 책을 기부하는 것은 금지돼 있기 때문에 위탁기관을 지정해 빛고을 지식공유센터를 운영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합리적인 소비를 촉진하자는 의미에서 시작된 만큼 키즈공유센터와 빛고을 지식공유센터를 많이 활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인도·가로등·중앙선 없는 '3無 도로' 위험천만

광산구 농촌지역 고봉·용진로 교통안전 사각 '원성'

광주시 광산구 농촌지역을 관통하는 일부 도로에 인도나 가로등이 전혀 설치되지 않는 등 교통 안전시설이 미흡해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주민생활에도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광산구에 따르면, 임곡동 성내고가교~하남지하도까지 길이 6㎞의 2차선 고봉로(대로 1류19호선)의 경우 인도는 물론 가로등이 아예 설치되지 않았다. 또, 중앙선을 표시하는 황색선도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색이 바래 보행자와 차량의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도로는 인근에 있는 신임곡, 보화촌, 벽파원산막, 신봉정, 장수 등 6개 마을 320여 가구 580여 명의 주민들에게 영농로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임곡초교와 하남초교·광일중고등학교가 주변에 위치해 있어 학생 통학로로 이용되고 있는데다, 장성 상무대와 하남산업단지 등을 오가는 직장인에게는 통근로 역할도 하고 있어 평소 교통량이 많은 곳이기도 하다.

또, 광산구 임곡동 임곡교~본량동 주민센터~삼도초교까지 약 5㎞ 길이의 용진로 역시 교통안전시설이 미비해 보완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마을 주민 김 모씨는 "야간에는 중앙선을 보지 못한 운전자들이 반대편 차선을 침범하며 곡예운전을 하는데다, 헤드라이트를 켠 차들이 빠른 속도로 교행할 때면 순간적으로 시야가 제한돼 깜짝깜짝 놀라곤 한다"고 말했다.

임승순 임곡동장은 이와 관련 "주민들은 인도와 가로등, 중앙선이 없는 등 3무(無) 상태인 이 도로를 '마의 도로'라고 부르며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가로등 설치 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기원태기자 wtkee@

남구 문화교육특구 지원센터 6월 착공

명품 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광주시 남구 문화교육특구 특화사업이 윤곽을 드러냈다.

남구는 13일, 문화교육특구 관련 사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문화교육특구 지원센터를 올해 건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센터는 구민도서관이 지어지는 옛 구청사 공용주차장 부지 내에 건립되며, 올해 6월 착공해 내년 6월 준공될 예정이다. 이곳에는 문화 및 교육과 관련된 특화 자료실과 소공연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주민들이 다양한 문화와 교육 욕구를 실현하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된다.

이 밖에도 남구는 옛 구청사 공용주차장 부지에 전체면적 2030㎡ 규모의 구민도서관을 신축해 지역 내 40여개의 사설 도서관을 연계해 도서관 네트워킹을 구축할 계획이며, 각 마을회관 등에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을 역사 등을 교육하는 'SS스쿨'의 프로그램 수를 늘릴 예정이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